

아라



언니

나 ISA로 TIGER 미국나스닥100 사고 있거든

근데 이거 결국 원화로 사는 거잖아?

그냥 달러로 직접 QQQ 사는 게 낫지 않아? 뭔가 찜찜해

주아



오 그거 이번 Q&A 질문이랑 똑같아

Q&A 5월 3주차, 산책하는 하마님이 똑같이 물었어

ISA 절세 받으면서 환노출 ETF 가는 거 vs 달러로 직접 환전해서 미국 직투

장기로 보면 어느 쪽이 맞냐고

아라



맞아 그거!

주아



근데 강사가 딱 짚은 게 있어

이게 세금 문제처럼 보이지만 진짜 질문은 따로 있다는 거

아라



세금 아니야? ISA가 싸잖아



주아

맞아 세율만 보면 ISA 압승이야

ISA는 9.9%, 미국 직투는 양도세 22%

근데 네가 "원화 계좌가 찐찐하다"고 했잖아

그 찐찐함의 정체가 이 회차 핵심이야 ㅋㅋ

진짜 질문은 두 개

① 달러 표시 자산은 도대체 뭘 해주는가

② 한국에서 시스템 분산은 진짜 의미가 있는가

아라



오...

근데 환노출 ETF가 정확히 뭐야?



주아

쉽게 말하면

환노출 ETF 가격 = 미국 주가 × 원달러 환율

달러로 산 물건값이 환율 따라 같이 출렁이는 거야

반대로 환해지는 환율을 딱 고정시켜

미국 주가만 따라가고 환율은 막아버림

아라



환헤지가 더 안전한 거 아냐? 환율 막아주니까

주아



그게 함정이야

환헤지는 막는 데 비용이 들어

그리고 강사 말이, 원화가 5년 10년 20년 뒤에 달러보다 강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대

인구 구조도 그렇고 재정 적자도 그렇고

그래서 굳이 비용 들여 환율 막을 이유가 없다는 거지

강사는 환노출 권장이야

아라



아 그렇구나

그럼 ISA로 산 TIGER랑 그냥 QQQ랑 다른 거야?



주아

가격만 보면 거의 똑같아

TIGER 미국나스닥100(환노출)이든 QQQ든 똑같이 움직여

환노출이면 환율 그대로 반영하니까

옛날엔 TIGER 수수료가 비쌌는데 이제 많이 내려서
도찐개찐이야

그러니까 원화로 표시된다는 거 자체는 가격 면에선 문제가
아니야

아라



엔 그럼 ISA가 그냥 다 이기는 거 아냐?

가격 같고 세금 싸고



주아

세금 얘기부터 정리해줄게

예를 들어 1억 굴려서 5년 동안 3,000만원 벌었다 치자

일반 계좌면 배당소득세 15.4% → **462만원**

ISA 일반형이면 200만원 비과세 + 나머지 9.9% →
277만원

미국 직투면 양도세 22% → **605만원**

아라



헐 ISA가 진짜 싸네

주아



○○ 세금만 보면 ISA 일반형이 갑이야

근데 여기 한국 세법 아이러니가 하나 있어

일반 계좌로 한국 ETF(TIGER) 사면

수익금이 자칫 종합소득세에 합산될 수 있어

그럼 세율이 확 뛰어

근데 신기하게 미국 직투 양도세 22%는 종합소득세에 안 들어가

아라



어 그럼 부자들은 미국 직투가 낫겠네?



주아

정확해 👍

수익금 크면 클수록 자산가는 미국 직투가 유리할 수 있어

근데 ISA는 그 종합소득세 위험을 피하면서 세금도 적으니까

세금 면에선 ISA 일반형이 제일 유리해

여기까지면 ISA가 답이지

근데 너 왜 찼찼했어?

아라



음... 그냥 원화로만 나오는 게 좀



주아

바로 그거야!!

강사가 말한 두 가지 헤지를 구분해야 돼

환율 헤지 — 원화 약세 되면 내 자산 가치 오르는 거

이건 ISA 환노출로 **가능**해

시스템 헤지 — 내 자산이 어느 시스템 안에 있느냐

이건 ISA로는 **안 돼**

아라

그냥 원화로만 나오는 게 좀

ISA는 팔면 결국 원화로 들어오니까

QQQ를 미국 시스템에서 팔면 달러가 생기잖아

팔고 나서 달러가 생기는 거랑 원화가 생기는 거는 다른 결과를 가져와

네 직감이 정확했던 거야. 이 둘은 차원이 달라

아라



오 소름

근데 시스템 헤지가 그렇게 중요해?



주아

이거 보면 무서워져 ㅋㅋ

국가가 자본통제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주아

레바논은 월 200~400달러만 찾게 하고 달러를 헐값에 바꿔버렸어

달러 자산 86%가 날아갔어

아라

헐 미친;;





주아

레바논만이 아니야

아르헨티나 2001 — 주 250페소만 찾게 하고 달러를
강제로 페소로 바꿈 → 65% 파괴

키프로스 2013 — 10만 유로 넘는 예금은 강제 삭감 →
47% 파괴

공통점은 하나야

**국가가 자본통제 하면 시스템 안에 있던 달러 자산도
가치가 몰수돼**

아라



그럼 우리도 위험한 거 아냐??



주아

그게 핵심 질문이야

근데 일단 이런 거대한 위기는 30~40년에 한 번씩 와

투자 10년만 할 거면 사실 걱정할 일 아니야

근데 30년 40년 길게 투자하면 한 번쯤 마주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진짜 질문은 — 우리나라는 그런 자본통제 할
나라냐?

아라



할 거 같은데...?

주아



그게 반전이야 ㅋㅋ

1997년 외환위기 기억나? 환율이 800원에서 1,960원까지 갔어

다른 나라 같으면 인출 막고 강제 환전 했을 상황

근데 한국은 외환시장 잠깐 멈춘 거 말고는

개인 인출 한도 X

강제 환전 X

예금 삭감 X

오히려 자본시장을 더 열었어

아라



오 진짜?



주아

국가 부도 직전인데도 반시장 정책을 안 만든 거야

그래서 한국에선 달러 자산이 가치를 지켰어

자본통제 리스크 면에선 한국이 아르헨/키프로스/
레바논보다 한 수 위

그러니까 한국 증권사로 QQQ 산다고 시스템 위기 걱정할
단계는 아니야

아라



오 그럼 나 그냥 ISA 계속 하면 되겠다



주아

거의 맞아

근데 ISA랑 한국 증권사 직투가 완전히 똑같진 않아

달러를 직접 손에 쥐는 데는 분명한 가치가 있거든

여행 가면 환전비 아끼고, 자녀 유학 송금도 달러→달러라
편하고

심리적으로도 '내 달러 있다'는 안정감이 있어

근데 진짜 중요한 무기는 따로 있어

환율 타이밍의 자율성

아라



그게 뭐야?

주아



물건 팔고 돈 바로 안 바꾸고, 환율 좋을 때 골라서 바꾸는 자유야

QQQ를 팔면 달러가 생기잖아

그 달러를 들고 있다가 나중에 환율 유리할 때 바꿀 수 있어

근데 ISA는 파는 순간 그 시점 환율로 딱 고정돼

이 시간차를 못 쓰는 거지

아라



아 그래서 달러 직접 보유가 좋은 거구나



주아

맞아. 그리고 이게 위기 때 진가를 발휘해

나스닥이 폭락하면 다들 미국이 더 튼튼하다고 원화를 먼저 던져

그래서 달러는 강세, 원화는 약세 →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2008년 금융위기 봐봐

나스닥은 -41% 떨어졌는데 원달러는 1,000원에서 1,570원, +57% 올랐어

TIGER 나스닥100 갖고 있었으면 환차익 덕에 오히려 +15% 보고 빠져나올 수 있었고

미리 달러 들고 있었으면 그 +57%를 고스란히 먹는 거야

아라



와 미쳤다 위기인데 이득이라니



주아

2020 코로나 때도 나스닥 -30%인데 원달러 +9% 올랐어

달러 직접 보유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이게 ISA보다 한국 증권사 직투가 한 발 앞서는 지점이야

아라



그럼 결론이 뭐야? 머리 복잡해 ㅋㅋ



주아

정리해줄게

선택지는 3단계야

1단계 — ISA 환노출 ETF (절세 9.9%, 한국 증권사)

2단계 — 한국 증권사 직투 (양도세 22%, 달러 직접 보유)

3단계 — 미국 증권사 직투 (완전한 시스템 분리)

아라



3단계 미국 직투 해야 하는 거 아냐? 제일 안전하잖아



주아

그게 일반인한테 쉽지가 않아

미국 계좌는 만들기도, 관리도, 세금 신고도 진짜 복잡해

강사도 미국 계좌 달는 것조차 전화 몇 번씩 하면서
고생했대 ㅋㅋ

주재원이나 특파원처럼 해외 사는 사람한테 옵션이지만

일반인한테 비용이 이득보다 커

아라



아 그렇구나



주아

그래서 결론은

네 직감은 정확했어 — 환율 헤지랑 시스템 분산은 차원이 달라

근데 한국은 자본통제 안 한 나라라 시스템 분산은 아직 비용이 가치보다 커

그러니까 ISA는 버리지 마. 절세는 진짜 가치니까

대신 ISA 한도 초과분은 한국 증권사 직투로 가는 게 더 나아

환율 타이밍 자율성 같은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 이번 회차 정리 — 강사 결론

- 01 환노출 ETF 선택**

— 환헤지는 비용 + 원화 장기 약세로 장기 손해. TIGER ≈ QQQ
- 02 ISA는 버리지 않는다**

— 절세는 진짜 가치. 환노출형으로 환율 문제도 따라감
- 03 한도 초과분은 한국 증권사 직투**

— 환율 타이밍 자율성. 서울만 보면 손해 같아도 유리한 측면
- 04 미국 직투는 일반인에게 쉽지 않다**

— 관리·세금 복잡성. 한국 시스템 위기는 아직 고민할 단계 아님

아라



오 깔끔하다

나 ISA 계속 하면서 한도 넘으면 한국 증권사로 직투하면 되겠네

주아



딱 그거야 🙌

구체적인 투자 방법은 Part 7에서 본격적으로 다룬대

그거 올라오면 또 풀어줄게

아라



고마워 언니 ❤️

원화 계좌 찜찜한 거 이제 이해됐어

본 정리는 박종훈의 지식한방 Q&A 5월 3주차 회차(2026-05-19, parent: Part 4-5강) 콘텐츠 정리본이다. 강사 본인 정수 + 강의 자체 정량(ISA 세금·자본통제 사례·1997·위기 환율) 인용으로 구성. †1~†4 외부 자료 보강은 강의가 언급한 사례·메커니즘의 사실 확인 목적이며, 강의의 투자 판단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권고를 더하지 않는다.